

제25회 법무사 헌법시험에 대한 총평

먼저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5회 법무사시험 헌법과목에 대한 총평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쉽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문의 길이가 길게 구성된 문제가 3개(지방자치제도, 제대군인가산점제도, 부담금제도)나 있었다는 점,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7개나 출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쟁점 자체는 예상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바, 선방한 수험생들도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쟁점의 구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권 파트에서 기본권제한의 한계, 평등권(2문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판청구권 등 총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작년 8문제)

통치구조에서는 정당제도, 지방자치제도, 선거관리위원회, 국회(3문제),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2문제) 등 총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작년 9문제)

지문의 구성

총 100개의 지문 가운데 판례지문은 51개(작년 68개), 법령지문은 49개(작년 26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출제되었던 헌정사가 올해 출제되지 아니하였고, 오직 판례와 법령만으로 지문이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험준비를 위하여

올해 출제경향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출제비중이 역사상 가장 높았다는 점과 하나의 중요 쟁점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판례 뿐만 아니라 법령도 꼼꼼히 정리해야 하며,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공부하여야 할 것입니다.